

김연희 연구원

요약

미국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 수의 약 99.9%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 중소기업은 재산 피해, 소송 발생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위험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기업주들은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복잡성,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중소기업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미국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 수의 약 99.9%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
 - 미국에서 중소기업(Small business)은 산업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나,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이 정의한 ‘근로자 500인 이하의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사용함
 -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각 산업별 고용규모와 재정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을 정의하는데, 중소기업의 범위는 1인 사업장부터 1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까지 매우 넓으며, 약 3,31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음
 - 2022년 7월 히스코스(Hiscox) 보험회사가 근로자 50인 이하 기업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70% 이상은 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¹⁾
 - 보험상품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일반배상책임보험 담보(65%)가 가장 높았고, 재산보험(45%), 근로자 재해보험(35%), 전문인배상책임보험(32%) 순임
 - 또한, 응답자의 68%는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우려하여 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20%는 벤더 업체나 협력업체가 보험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함
- 중소기업은 재산 피해, 소송 발생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위험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중소기업은 수해·풍해와 같은 자연재해, 강도·절도 발생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평판 훼손, 제조물 결함 및 고객 전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확대됨
 - 매년 1억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소송을 당할 경우 법적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책임소송(Liability lawsuit)의 중간비용(Median cost)은 54,000달러부터 시작함²⁾
 -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랜섬웨어 피해 시 중소기업은 사업 중단에 따른

1)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23/10/11/743586.htm>

2) <https://www.simplybusiness.com/simply-u/no-business-insurance-penalty>

손실 발생, 데이터 복구 비용을 지불하고도 모든 데이터 복구 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기업주들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복잡성,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2월 넥스트(Next) 보험회사가 근로자 50인 이하 기업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51%), 업무상 질병·사고(39%), 사이버 공격(36%) 등을 기업 운영의 위험 요소로 생각함³⁾
- 하지만 응답자의 40%는 보험상품을 이해하는 것이 세금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했으며, 응답자의 53%는 보험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함
 - 미국은 주(州)별로 중소기업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상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음
- 2023년 4월 네션와이드(Nationwide) 보험회사가 근로자 50인 이하 기업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은 2007~2009년의 금융위기와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인해 응답자의 88%는 보험가입을 재고하거나 가입한 보험상품을 재검토할 예정임⁴⁾
 - 기업주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재검토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한 보험상품 확인(39%), 보험 대리인을 통해 보장내용 확인(28%), 사업장에 적합한 보장내용을 찾기 위해 보험대리인에게 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추천을 요청함(18%) 순으로 나타남

○ 인수어테크 기업들은 중소기업주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2023년 11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트는 올스테이트(Allstate) 보험회사와 알리안츠 그룹의 디지털 투자 부문 자회사인 알리안츠 엑스(Allianz X)로부터 2억 6,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⁵⁾
 - 넥스트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업주들에게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보다 정교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예정임
- 2023년 11월 사이버보험회사 카우벨(Cowbell)은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의 프로스퍼리티(Prosperity)⁷⁾ 펀드를 통해 2,5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함⁶⁾
 - 카우벨은 대화형 AI 비서인 'MooGPT'를 출시하여 기업주들이 사이버 위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언함으로써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⁷⁾
- 2024년 1월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레인보우(Rainbow) 보험회사는 1,200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했으며, 주력 보험상품인 BOP⁸⁾ 판매를 확대하고 보험금 청구 서비스 품질 향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⁹⁾

3) <https://www.nextinsurance.com/blog/survey-small-businesses-lack-confidence-adequate-insurance>

4) Nationwide(2023), "Nationwide Economic Impact Survey Report: Business Owner Insights"

5) <https://www.nextinsurance.com/blog/blog-allstate-allianz-partnership-265-million-investment>

6) <https://venturebeat.com/security/cowbell-gets-25m-more-to-keep-growing-like-gangbusters>

7) <https://cowbell.insure/news-events/pr/cowbell-introduces-moogpt-powered-by-generative-ai>

8)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중소기업을 위한 패키지 보험으로 재물보험, 상해보험 등을 결합한 상품임

9) <https://fintech.global/2024/01/11/rainbow-secures-12m-for-small-business-insurance-innovation>